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에 적합한 항암치료를 찾고 환자의 경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서경 교수

지난해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에서 taxane계 항암치료의 유효성’을 밝혀 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받은 한서경 교수를 만나보았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환자치료와 의료정책에 일조하고자 하는 한 교수의 열정과 진중함이 빛났던 자리로 우리나라 의학계의 통계학과 방법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출발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다. 그러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서 만큼은 이 절대적인 명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암으로 진단 당시 전이가 확인되었으나 원발부위를 찾지 못하는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에서 taxane계 항암치료의 유효성을 밝힌 한서경 교수의 연구는 그래서 더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술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듯한 차분한 목소리 톤,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되짚으며 이야기하는 화법을 구사한 한서경 교수는 천상 의학통계학자이자 임상연구 방법론 전문가였다.

“원발부위불명암은 치료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암입니다. 소위 착한 암이라 불리는 유방암 같은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기도 하지만, 원발부위불명암은 1년 생존률이 30%가 조금 넘는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암이죠. 특히 일부의 환자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확립된 치료법이 없습니다. 원발부위불명 전이암 연구는 기존의 다양하게 시도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총망라해서 정리, 평가, 분석한 뒤 어떤 치료법이 이 환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겠는가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이었고, 그렇다보니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연구방법론 전문가로서 제가 이 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독립된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 원발부위불





명 전이암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환으로 훗날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원과 함께한 자신의 연구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한서경 교수가 이 연구에서 기대하는 바였다.

끊임없는 확인과 분석으로 확고한 근거 제시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원발부위불명암 환자의 치료에 최적합한 근거를 찾아낸 이번 연구에서 한서경 교수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것이 기존 문헌이 제시하고 있던 연구결과를 다시 체계적으로 모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모아서 하는 연구보다는 시간이 덜 드는 연구죠.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근거를 내려다보면 모든 연구가 다 그렇지만 꼼꼼히 보고 충분히 평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뒤 이게 문제가 없는지 다시 다 뒤집어서 보기 때문에 두세 번을 다시 하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죠. 1차적인 윤곽은 빨리 나와 제공할 수 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이 결과가 맞는지 다시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들을 정리한 뒤 관련 문헌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정리해 자료를 뽑아내고 분석하는 4~5명의 연구자들과 원발부위불명암이라는 특정암 분야에서 의견을 주는 임상전문가 종양전문 의 등 총 8명이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흘린 땀방울의 양은 능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의료에 있어서 하이테크놀러지 의료기술, 획기적인 의약품 개발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쓰이는 방법들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확고한 근거 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부담을 지고 있는 국가입장에서 비용효과가 있는 의료기술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역시 누군가는 계속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해줘야 하는 중요

한 영역이지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NECA이고 저의 지향점과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NECA 쪽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숫자를 뛰어넘는 파급효과, 의학통계

한서경 교수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다.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WHO로부터 영유아들의 급성설사 탈수 방지를 위한 소금물 구성 권고안 확인 작업을 의뢰를 받은 것. 그간 수행했던 근거들을 모아 확인했더니 WHO 당시 권고안보다 삼투압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한서경 교수의 연구 결과로 인해 그해 여름 WHO와 유니세프는 회의를 거쳐 국제 권고안을 바꾸었다. 특히 의료환경이 열악한 제3세계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소금물을 이용한 급성설사의 1차 치료는 치사율과도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권고안 변경으로 이어지는 연구결과가 갖는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통계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늘 환자와 대면하는 임상선생님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루는 수치는 그냥 수치에 불과할 수 있죠. 그러나 70과 80과 같은 수치가 갖은 의미를 환자의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서 근거로서 평가하고, 근거가 갖는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그 파급효과를 생각해보면 수치는 그냥 수치가 아닌 겁니다.”

숫자가 숫자를 뛰어넘어 환자를 살리고 득이 되는, 생명구원이라는 바다에 다다른 경험은 의학통계학자로서 한서경 교수의 커리어를 진행하는 데 초심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다름없었던 다양한 임상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비틀림 없는 연구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 한서경 교수. 그 발걸음과 비례해 우리나라 의학통계분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